

# ‘쓰레기 섬’으로 변한 목포 앞바다

### 평화광장·남항·여객선터미널 등 10만㎡ 달해

### 15일까지 수문 개방 예정 당분간 더 유입될 듯

영산강 상류에서의 집중호우로 목포 앞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청하선 등을 동원한 수거작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목포시와 목포해수청 등에 따르면 영산호 수위조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면서 평화광장과 남항, 내항 등 목포 앞바다 10만㎡에 걸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장성과 나주 등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지난 7일부터 폭 480m의 수문 13개를 하루 1~2차례씩 개방하고 있다.

수문을 통해 조당 최대 1만2000t의 물이 목포항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도 함께 흘러보내지고 있다.

유입된 비닐과 스티로폼, 강통 등 생활쓰레기는 물론 강변의 갈대와 나무, 풀 등 온갖 쓰레기는 평화광장 앞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

섬을 이루고 있다.

또 남항과 목포여객선 터미널 등에도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목포해수청과 목포시는 해경과 군부대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일부터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밀려든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영산호 수위조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수문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어 목포 앞바다로의 쓰레기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수청은 그동안 청하선 2척과 어항관리선 1척, 해경방제정 1척 등 4척의 선박과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쓰레기 160t을 수거했다.

목포시와 해수청은 목포 앞바다로 밀려든 쓰레기가 너무 많아 경



9일 오전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바다가 영산강 하굿둑 방류로 흘러내린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찰과 군부대의 인력과 특수장비를 지원받아 수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영산호 내부에도 쓰레기가 많아 수문 개방시 목포항으로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쓰레기 유입을 예측할 수 없어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호 내부인 목포해양스포츠허브 인근도 배수갑문을 통과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 곳은 전남도에서 청소선을 동원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선욱 기자

## 폭우로 담양서 실종된 70대 숨진 채 발견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남 담양에서 실종된 70대가 수색 나흘째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 담양군 담양읍 하동리 금월교 하류 500m 지점에서 A(7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소방관이 발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13분께 담양 금성면 대곡리 대곡교차로에서 송곡교 진입 전 도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담양에는 지난 7일 오전 0시부터 9일 정오까지 612mm의 폭우가 내렸다.

## 해경, 한밤 여수 바다에 빠진 20대 남녀 2명 구조

전남 여수에서 새벽시간 바다에 빠진 20대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11일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1분께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A(26·여)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난사고를 발견한 B(26)씨도 바다로 뛰어 들었다.

19로부터 긴급상황을 전달 받은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사고해역에서 바다에 떠 있는 A씨 등 2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에서 관광을 온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며 “익수자를 발견하면 뛰어들지 말고 119 등에 신고한 뒤 부유물을 던져 익수자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양평 옥천 냇가에서 장독 뒀던 60대 여성 실종

냇가에서 장독을 뒀던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1일 경기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27분께 “어머니가 어제(9일)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탐문한 결과 실종자가 9일 냇가에서 장독을 두는 것을 봤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옥천면 용천리 일대의 냇가를 수색했으나 구조하지 못했다. 소방과 경찰은 연일 내린 비로 당시 냇물 수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 사고지점부터 하류방향으로 수색하고 있다.

이 냇물은 2~3km를 지나면 한강과 만나게 돼 있어 수색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11일 소방과 경찰은 보트와 드론, 구급차 등 장비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사흘만에 술값으로 월급 탕진하고 강도살인

아내와 두 딸을 둔 40대 가정이 술값으로 탕진한 월급을 메꾸려고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3시30분께 동두천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인기척을 느낀 집주인 B(77·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인 A씨는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술과 유흥에 사용하고 부친의 수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급을 단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소비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인기척에 뒤처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평생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족에게 지급된 피해 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인의 부친이 국가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하수관 확장 2개월만에 또 침수”...광장 상인들 반발

대책위 구성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하수관로 확장공사 완공 2개월여만에 상가 수습체가 또 침수돼 상인 등이 “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침수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광주시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시와 백운광장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백운고가차도 밑의 요양병원과 상가, 주택 등 50여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요양병원 등은 전기장비 등이 있는 지하시설이 완전히 잠겨 정전됐고 거동불편 환자 200여명과 보호자 등이 대피조차 하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일부 상가는 빗물에 떠다니던 인근의 공사현장 장비들이 유리벽 등을 파손하면서 내부까지 완전 침수돼 업무용 컴퓨터 등이 모두 잠겼다.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9일부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상가는 3일째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복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인과 주민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백운광장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백운고가차도 철거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하수관 확장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018년 8월 많은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뒤 확장공사가 진행됐으며 실험부터 산부인과 병원까지 518m 구간에 시공간 72mm의 비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관이 매설됐고 지난 6월24일 준공됐다.

지난 7일과 8일 남구지역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상인들은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내려 백운광장 일대의 하수구가 역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상인들이 장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우선하고 추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작은 관들은 공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다”며 “전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3일째 손으로 물을 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남구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경찰, 지역 비하 글 게시자 추적

특정 사이트 중심 수사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수해피해를 두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워터파크’ ‘설렁탕’ 등 지역 비하성 글이 잇따라 게시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해와 관련된 지역 비하 게시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게시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특정 사이트를 통해 지역 비하 게시글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아이디 등을 파악했다.

게시자는 사회문제가 되자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 사이트 운영사 측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SNS 상에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